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서 셀프포트레이트에 관한 연구 : 비비안 마이어의 자기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self-portraits in contemporary documentary photography:
Focused on the way of Vivian Maier's self-expression

장 석, 양 종 훈, 이 상 은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Zhang Shuo, Yang Jong-hoon, Lee Sang-eun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Image

요약

본 연구는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창작 방식에 대해 탐구했다. 비비안 마이어는 셀프포트레이트 촬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사진의 피사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거울이나 유리 등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방향의 프레임인 플라이플렉스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내면적 자아의 모습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다. 또한, 주변 배경에 대한 자신의 정서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사진가들은 각기 다른 촬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인생을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한다.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외적, 내적 모습을 그녀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작품에 대한 학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비비안 마이어의 그녀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작품에 나타난 그녀의 인생관과 예술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셀프포트레이트(Self portrait)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표현하고자 했던 자아상, 사회상은 무엇인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헌 연구(동기환, 2016; 계개리, 2016; 양리군, 2015)와 다큐멘터리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Finding Vivian Maier)>의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하고 그녀의 셀프포트레이트 작품에 나타나는 자아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 말루프(John Maloof)의 비비안 마이어 작품집에 수록된 셀프포트레이트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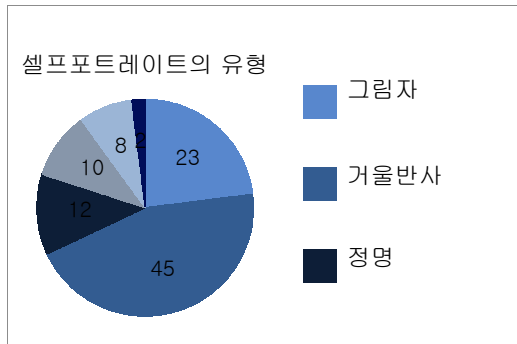
1.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

비비안 도로시 마이어(Vivian dorothy Maier)는 1926년 2월 1일 미국에서 태어났다. 비비안의 부모는 화목하지 않았으며 비비안이 태어난 그 다음 해에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로 비비안 마이어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되고, 큰 오빠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비비안의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데리고 프랑스 고향으로 돌아갔다. 6년 후 오빠를 데리고 모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녀는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1살에 홀로 프랑스로 돌아가 4년 동안 살다가 1956년 미국 시카고에서 정착하여 부모, 병간인, 가정부 등의 일을 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2.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비비안 마이어의 대표적인 작품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직접 촬영한 셀프포트레이트를 들 수 있다. 현존하는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사진을 분류한 결과 거울 반사 촬영이 가장 많았으며, 그림자 촬영, 유리 반사 촬영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비비안 마이어는 셀프포트레이트 촬영을 자아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 작품에서 뚜렷한 눈빛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피사체로 적극적으로



▶▶ 그림 1: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유형

활용해 자신의 내면세계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비비안의 일생은 궁핍하고 외로웠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단한 생활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길거리를 걸으며 자신을 촬영함으로써 내면세계와의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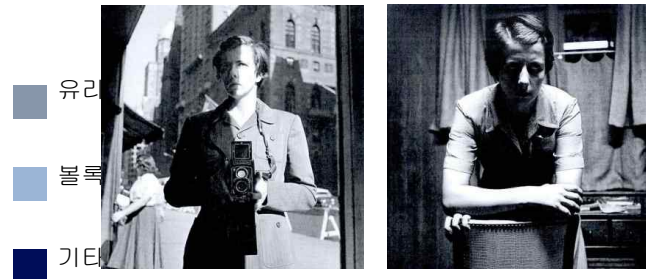
여러 사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 당시 관찰한 특정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해석해 자신의 깊은 내면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습과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한다.

비비안 마이어의 전면 사진은 많지 않지만 그 중 두 작품에서 음영과 구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그녀의 모습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도심의 큰 빌딩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정면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녀는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를 이용해 정사각형 프레임의 사진을 찍었다. 가슴 앞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하는 것은 그녀의 대표적인 촬영자세로 반사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다. 빛과 음영을 활용하여 몸의 반쪽은 밝게 다른 반쪽은 어둡게 촬영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비비안 마이어를 상징하는 롤라이플렉스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실내 촬영에서 카메라를 맞은편에 자신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카메라로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시선을 떨궈 빛이 코 부위만 비추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강조했다. 주변에 무관심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으면 실내에서 촬영함으로써 외부세계와의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뒤늦게 조명된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녀가 인식하고자 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 그림 2: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 그림 3: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인생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탐구했다.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의 예술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녀의 고유한 창작 특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1] 동가한(董家涵),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발견". 2016. pp13-28.
- [2] 존 말루프(John Maloof), Vivian maier: street photographer. 2011.
- [3] 존 말루프(John Maloof), Vivian maier: self-portraits. 2013.
- [4] 계개리(桂凱麗), "비비안 마이어의 창작 특징 분석". 2016.
- [5] 양리군(杨丽君), "비비안 마이어 중국 전시 발기인 특별 인터뷰". 2015.